

국정과제회의

통합과 상생은 목표이자 전략입니다.

수고해 주신 균형발전위원들과 새로운 토론과 관련해 참석해주신 지역의 단체장, 지역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합과 상생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것이 대립과 분열보다는 그 자체가 훨씬 좋은 목표이고 실제로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과 상생이 꼭 필요합니다. 통합과 상생은 목표이자 전략입니다.

통합과 상생의 조건은 균형입니다

그런데 흔히 통합과 상생을 얘기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서,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서로 만족하고 협력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통합과 상생의 조건은 균형입니다. 정서적 요인도 있지만 정서적 요인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선은 뿌리를 찾아가보면 차별과 소외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대도시 집중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전략을 내놓고 수행하고 있으나 가장 포괄적인 정책이 균형발전입니다. 그러나 발전은 속성상 단기적인 발전 위주로 가고, 단기적 발전에 집중할수록 수도권 집중, 대도시 집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균형을 만들고, 전체 발전 역량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수도권 대도시 집중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빠른 성과를 내려면 수도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려면 낙후됐다고 하는 소외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가야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국민의 처지에서 볼 때에도 수도권이 사업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으나, 사람이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두루 거치고 살아야 하고, 국토 전체의 생태계나 환경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인생 경험으로 인생을 질 높은 사회에서 살면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토 전체가 골고루 잘 살아야 합니다. 낙후지역에 돈이 들더라도 낙후지역이 미래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합니다.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집중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보따리가 적다고 그럴지 모르나 자원을 투입할 때 성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많이 시켜야 하고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집중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첫 술 밥이 허기진다고 느끼더라도 성공시켜서 그 뒤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투자에 투입되는 예산의 크고 작기에 집착하지 말고 성공하는 사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주십시오.